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에스라·느헤미야·에스터

“이 때를 위함이라”
For such a time as this
(에 4:14)

9월 7일~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선교사들을 위한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개관

11월 18일(목) 봉헌 및 개관예배 드려

감리교 농촌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할 때 이용되었던 인우학사가 약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1월 18일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봉헌 및 개관예배를 드렸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940평 규모로, 게스트룸이 29개, 예배실 1개, 세미나룸 3개, 사무실 5개, 자료실 1개가 있으며, 선교사들이 머물 29개의 게스트룸은 2인실(스탠다드) 12개, 4인실(패밀리룸)이 17개가 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이철감독회장

은 “이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쉼터이며 영성회복을 하는 장소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교는 중단 되어서는 안되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멈추서는 안된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인우학사도 광림교회의 전액 후원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광림교회와 김정석 감독의 도움으로 선교센터를 개관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림교회에서 인우학사, 선교센터 후원 감리회 선교국위원장인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은 공사보고 및 취지를 통해 “6.25 전쟁이후 미국감리회에서 설립된 인우학사는 1996년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당시 감독회장이셨던 김선도 감독님과 광림교회에서 22억원을 지원하여 현대적 기숙사로 재탄생하였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 곳을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로 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도 광림교회 교인들이 20억원의 공사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이 선교센터를 재개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센터에는 선교사의 쉼을 위한 게스트룸 뿐 아니라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선교사상담센터, 생태환경선교회, 선교사회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선교센터의 개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사랑의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목사는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가 선교사 본인과 파송교회 교인들이나 후원자들의

기도처, 1,350여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안식처, 80여개국 선교지의 역사와 언어 공부, 선교사역 정리, 전 세계 선교센터와 선교사 네트워크, 선교세미나 등을 운영하는 연속체가 되어 해외선교사들을 위한 진정한 선교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 참석자들은 선교센터 정문에서 테이프 커팅과 제막식을 하며 개관을 알렸다.

광림미술인선교회 그림 기증 선교센터 개관에 맞춰 광림교회 미술인선교회에서는 건물입구와 각층 복도, 계단 벽 등에 12명의 회원이 그린 15점의 미술품을 전시하였으며, 작품들은 전시와 함께 선교센터에 영구 기증되었다. 이수자 권사(미술인선교회 회장)는 “회원들의 작품을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센터에 전시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 하나는 언제나 따로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으며,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이후 백성들의 환호를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이후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일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제자들조차 풍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그때 마침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27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겼고 그 즉시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30절)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31절)라고 물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의 사나운 풍랑과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삶에 드리워지며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세상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활용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그의 신앙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즉흥적인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곧 의심하였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물위를 잠시



마태복음 14장 18~22절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잠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은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넓어질수록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되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예”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보십시오. 방금까지도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을 주목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유령이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그의 요청에 ‘오라’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의 모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기에 ‘예’하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법칙에 따라 물에 빠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

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며, 우리 삶을 영적으로 더욱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문 28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 안’은 바다라는 현실 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더라도 배 안에 있는 것이 배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밖으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안전한 배 안보다도 풍랑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뚫으며 예수님과 맞춰졌던 초점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다. 곧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진다면, 내가 조금은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곧 세상 속으로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2021 성령한국청년대회 x 갓플렉스(God Flex) 시즌 2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전해



2021 성령한국청년대회와 갓플렉스(God Flex) 시즌2 집회가 11월 19일 오후 7시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광림교회가 주관하는 '성령한국청년대회'와 '갓플렉스'가 동시에 열린 이번 집회는 워드 코로나 이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첫 초교과 연합집회이다.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회복과 청년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갓플렉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이다.

플레이트 위십의 찬양으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서울남연회 이성경 청년회장의 기도인도와 최상일 목사의 대표기도, 강주호 성도의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이어졌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절망 속에도 회복을 꿈꾼 사람들'(스 2:68-70) 말씀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여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다.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고, 나라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우리도 구별된 자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의 주

인공이 되자. 예배를 회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패널로 나온 박 위(온라인 콘텐츠제작자) 청년이 "고난 중에 다시 만난 하나님은 '내가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라'며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하셨다.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했다.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크리스천의 금융문맹 탈출을 권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돈을 일하게 해서 어려운 동족들을 위해 사용한다. 돈을 터부시하지 말고, 도덕성을 가진 부자가 되어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했다. 손주는 메가스터디 회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자"고 권했다.

3부에서 가수 소향은 공연과 함께 "슬픔과 고난의 바닥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힘들 때 마다 내게 기쁨 어

를 내어준 분은 예수님이였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자랑하고 싶다"며 찬양을 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광림교회 유현수(청년부) 성도는 "진로를 준비하며 명확한 동기와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갓플렉스에서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의미와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공부의 목표는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편서영(청년부) 성도는 "모든 시간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 마음 발에 새겨졌습니다. 박 위님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긴 시간동안 투병 중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라 하시는 것은 주신 비전과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인도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장천홀에서



지난 14일(주일) 장천홀에서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권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모여 광림교회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삼상 7:12)이란 제목으로 김성산 목사(사랑부)는 말씀을 전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부에 증만하여 앞으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부가 되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고 했다. 사랑나눔 중창단은 <은혜> 찬양으로 헌금 특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부 전체의 진정한 감사 고백이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영상으로 제작된 지난 30년 동안 사랑부의 발자취를 한눈에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이어서 사랑부의 초석을 다지느라 열정적으로 긴 세월을 헌신해온 김분한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장세근 장로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후원해 주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사랑부는 1991년 학생과 교사를 합하여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 100명, 교사 9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자신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시켜 이제는 장애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부로 성장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추수감사주일예배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랑부 아트캘린더 2022
사랑부 12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담긴 캘린더를 빛의 숲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학부모&교사 세미나
12월 5일까지 장천홀에서 진행 중이다.

담임목사 동정



- 11/16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11/17 군선교파송교단연합예배
- 평신도지도자임원회 개최예배
- 11/18 아펜젤러선교센터 봉헌예배
- 11/19 성령한국청년대회 x 갓플렉스
- 11/21 추수감사주일
- 강동지방 연합부흥성회
- 11/23 월드비전 이사회
- 11/24 강동지방 연합부흥성회
- 11/26 서울남연회 속회지도자교육
- 감리교 군선교회 실행위원회
- Dr.제임스홀 내한 130주년 감사예배 및 심포지엄
- 11/27 평신도지도자리더쉽향상세미나
- 11/28 4steps 강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내 인생의 말씀

아름다운 광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5년 전 수능기도를 할때, 처음 겪는 입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수록 나의 욕심의 간구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며 말씀을 듣던 중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마음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여름날 입시 준비로 복잡한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근처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하면서 걷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 햇빛을 가려줄 나무 그늘을 만나고 또 조금 후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늘과 바람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그 전날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님... 그보다 더 든든한 힘은 없겠구나 하면서 긍정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무가 새소리가 이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공원에 들어올때와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것없이 광야에 있지만 나의 광야는 더 이상 황량하고 외로운 곳이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광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선곳은 아름다운 광야이구나 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이지만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해성 집사 (여성교회총연합회 AB루디아 회계)

<아펜젤러 선교사-2>

아펜젤러 선교사의 교육사업



▲아펜젤러와 학생들(1887)
◀아펜젤러 집 뒤 정동 언덕 위에 세워진 배재학당

1885년 7월 19일에야 서울에 입성할 수 있었던 아펜젤러 부부는 자신들보다 앞서 5월 1일 서울에 도착한 의사 스크랜턴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 서울에 정착했다. 스크랜턴은 짧은 시간에 조선의 사정과 서울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펜젤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후트 공사(한국 주재 초대 미국 공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황제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후트 공사가 고종황제에게 아펜젤러가 학교를 설립해 영어를 가르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고종황제는 소신대로 그 일을 진행하라고 했다. 기쁜 마음으로 아펜젤러는 본격적인 교육 사업에 착수했고, 서울에 도착한 지 1년이 못되어 교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된 것이다. 아펜젤러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지만, 그 전에 교육사업에 혼

신을 쏟았다. 그 이유는 조선 정부가 허락한 사업은 교육과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는 선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통해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한 것이다. 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을 통해 조선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펜젤러는 조정의 긍정적인 인식과 관심 속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당시 교육에 열의가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까지 아펜젤러의 교육 사업에 호응하였다. 마침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고, 아펜젤러의 학생들이 관료로 채용되며 영어를 잘하는 것이 관직에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에 고종황제는 ‘유능한 인재로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배재학당(培

學堂)’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1887년에는 정동 언덕에 르네상스식 1층 건물로 강당과 도서관, 학당실과 교실을 지었고, 이 건물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었다. 배재학당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서구의 과학과 문학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였으며, 동시에 관직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훗날 배재학당은 조선의 근대화화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배재학당

“사랑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

29교구 남성선교회



29교구 개체선교회는 강서구, 여의도, 양천, 부천, 시흥 등의 지역에서 광림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선교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스테반선교회(회장: 박광현 집사), 바울선교회(회장: 박영준 권사), 웨슬레선교회(회장: 정규철 권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29교구 남성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여 기도함으로 코로나19를 이겨봅시다!”라는 목표로 힘을 내어 시작했지만, 기대와 달리 처음엔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

다.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예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 선교회 모임을 하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구 목사님과 교구 전도사님, 선교회장님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심방 덕분에 2~3명이 5명이 되고 10명, 15명으로 점점 참석하는 선교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29교구 남성선교회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선교회원들 또 가족들과 함께 매월 20여 명 이상 모이는 풍성한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사회봉사관에서 스테반, 바울, 웨슬레 선교회원과 가족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선교의 공동체를 세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선교회장인 박광현 집사는 “선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 선교회 뿐 아니라 광림의 모든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가 되고 싶은 숫자라도 함께 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9교구 남성선교회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가 되어 성령으로 뜨거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심방으로 함께해 주신 10선교구 목사님과 29교구 전도사님, 남성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냅니다.

박영준 권사(29교구 바울선교회장)

Shining Saturday Activities

토요일 문화센터? 우리는 SSA에 갑니다!



SSA는 'Shining Saturday Activities'의 약자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기 위한 광림교회학교의 토요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SSA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아우르는 배움의 터로 교회학교에 출석 하지 않아도 원한다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10월 16일 개강한 SSA에는 현재 5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다. 풋살, 농구, 배드민턴, 코바늘, 바이올린, 피아노, 과학상자, 연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레, 탁구, 컴퓨터(ITQ), 코딩, 오카리나, 우쿨렐레, 커피, 베이커리, 사회, 영어과목 등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각각 50분씩 진행되며, 수업 전이나 후에 교육국 임재철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11월 23일 진행된 과학상자 수업에서는 화산모형을 만들며 화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배웠다. 또한, 이날 코바늘 수업에서는 원하는 색상의 털실과 문구를 선택하여 마스크 줄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첫날 입에도 흥미를 갖고 집중력을 발휘해 코바늘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참 기뻐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어떤 것을 만들지 기대하며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수업 후에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아이들을 보며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예배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코바늘 강사 안지혜 집사가 첫 수업의 감동을 고백했다.

배드민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백다혜 학생

(유년1부)은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워요. 마음껏 뛰어 놀며 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는 넓은 장소가 교회안에 있다는게 신기해요. 다음주에는 새로운 친구도 데려 올 거예요. 토요일 이 시간이 매일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교회학교는 양질의 강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교인들의 참여도에 따라 유치부와 성인 강좌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QR코드나 교회학교를 통해 원하는 강좌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학교(02-2015-1178)에 문의하면 된다.

박희윤 기자

신앙 간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통로

청년부에서 4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의 삶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삶의 은혜들을 짧게나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청년부를 올라올 때만 해도 저에게 하나님 나라는 드넓은 들뜬에 많은 천사와 유니콘이 다니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노는 동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1살 첫 몽골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습의 팀원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몽골 청년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제게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작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상황들을 보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두발을 내딛고 있는 나의 삶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속장이라는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나의 열심으로 마음을 다할 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부족한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고,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원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넘어지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마주하지만 기도로 고백할 때,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멈출 수 없게 하십니다.

또한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동행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차준희 속장(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1월 14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19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오차론 부·오재윤 모·강혜림 김하린/하민 부·김호근 모·강수현 김지우 부·김기혁 모·정진아 임준우 부·임기현 모·함영은 우준신 부·우 선 모·한승희 배서준 부·배진원 모·김남수



김주혁 부·김우진 모·전혜경 이하령 부·이성환 모·안정경 정서진 부·정선혜 모·정상혁 김리우 부·김세희 모·송정민 장예건 부·장동욱 모·강주희 정로희 부·정희정 모·김태현



박주안 부·박경환 모·탁시원 류주현 부·류재웅 모·남기남 김도겸 부·김종대 모·김민정 황준아 부·황상준 모·이수영 정다은 부·정승필 모·이성아 최아일 부·최성안 모·명선화

이곳 남교회에도 교포는 없습니다

- 목회현장 -



김기운 목사(광림남교회)

예전 선교구에 있을 때 한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 요즘에 김포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바로 알아듣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포는 김장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겨울에 함께 김장을 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세상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나서는 더욱더 함께 김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한곳에서 동거동락 하시며,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남교회 여성교회” 분들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해남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회비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손수 배추 및 재료를 구입하고, 테이블을 이어 거대한 판을 만든다음, 박태환 선수도 울고 갈 접영의 몸짓으로 깎두기를 무치기 시작합니다.

근 하루 남짓 그렇게 치대며 완성시킨 배추김치, 깎두기, 파김치가 이곳저곳으로 배달됩니다. 68주년 기념 주일 당일까지, 한가득 쌓여있는 김치를 소중한 보물 다루듯이 이곳 저곳으로 옮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문득 이전 남교회가 세워지던 15년 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승용차 뒷자석에 냄새가 베는 것도 나물라라 한 채, 그저 한 곳 더 팔렸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함께 기쁘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전 뉴스레터의 목회현장 글에, 우리 광림의 권속들에게 ‘김포’는 있어도,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포기하는 ‘교포’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현장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합니다. 이곳 남교회에는 김포도 없고, 교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과 68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남교회의 나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이 가운데 이렇게나 귀하게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교우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광림남교회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성장시킨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며
광림남교회 교육국은 2021년 11월 8일(월)부터 17일(수)까지 8일 동안 남교회 대예배당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잠언 1장 7-9절의 말씀을 가지고 ‘Be blessing and be fruitful’이라는 주제로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점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적어지지만,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간

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 먼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 듣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의 믿음 속에서 자라난 디모데(딤후 1:3)가 떠올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주신 분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 시기에 이런 기도회를 통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현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가치있는 사람들이 되는 남교회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



광림서교회는 지난 11월 21일(주일)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한 해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낮 성찬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보



냈습니다. 주일 저녁예배는 작사가 김태희 집사님의 간증과 CCM 가수 여니엘의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현수건과 무릎 담요를 모아 춘천 사랑의 집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장선희 집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 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단 장식과 사랑의 집 나눔에 동참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은경 권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광림서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추수감사주일에배 <선교회별 성가제>

지난 추수감사주일 광림북교회에서는 특별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께 성찬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저녁에는 선교회별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본당에서 ‘선교구별 성가제’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선교회별 성

가제>를 준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학교 2팀을 포함하여, 총 8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상은 마리아 선교회에서, 최우수상은 중

고등부, 유아유치아동부가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수상과는 별개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7선교구

미리 듣는 성탄의 기쁜 소식, 세상으로

<2021 성탄축하 음악회> 11월 25일(목) 7시 장천홀에서 열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지난 25일 밤, 성탄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장천홀에 울려 퍼졌다. 광림교회 7선교구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음악회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기획되었다. 현재 음악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연진들은 같은 7선교구 성도들로 바쁜 일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헌신했다.

방송인 장준유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이석준(호른), 이주선(피아노) 집사 부부와 딸 이도연양(바이올린)의 크리스마스 메들리로 첫 무대를 열었다. 이어지는 황병기 명인의 수제자 지에리 권사의 가야금 연주와 소프라노 이선영의 아름다운 찬양, 박지승(플룻), 최정미(첼로), 정서미(피아노) 트리오의 연주 등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에 많은 관객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지막 무대는 정요한(바이올린), 김에나(피아노) 집사가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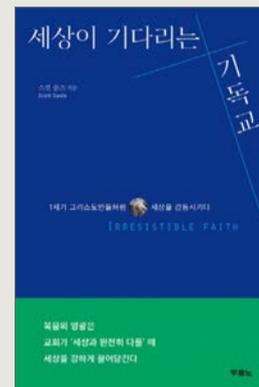
북한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부부의 삶이 담긴 연주는 긴 여운을 남기며 모두의 마음을 몽클하게 했다. 부모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도연 양은 “입시준비로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음악회를 위해 틈틈이 맞춰보며 한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김호근 권사(7선교구 연합회장)는 “음악이 주는 힘과 감동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교회 담장 넘어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스캇 솔즈 지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것을 이유로도 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 이는 우리가 그저 무시하고 넘길 것이 아니며,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상에 제대로 된 기독교를 보여줘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의 참 모습을 제안한다. 즉,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이 기대하며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갈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9선교구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한 젊은 가정들

새롭게 개편한 25, 26, 27교구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 한자리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마음으로 11월 21일(주일), <9선교구 스테반 마리아 페스티벌>이 나사렛 성전에서 열렸다. 워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약 100여명의 젊은 가족들이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친교와 사랑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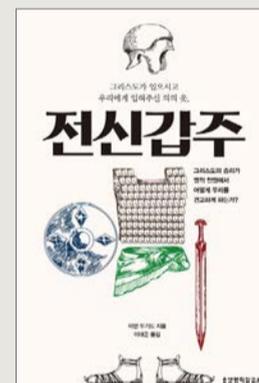
김황호 목사(9선교구)는 ‘예배하는 자의 기쁨’ (시 50:23)이란 제목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길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스테반 마리아 선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길 축복했다.

또한 새롭게 개편한 25, 26, 27교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와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서현숙 집사(25교구)는 간증의 시간에 신앙 기능 저하로 매일 네 차례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서 일치하는 신장을 기증받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이닝스쿨 간식 봉사, 전도에 앞장서며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Thanks 하나님’ 순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고마웠던 순간들, 생각나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을 작은 액자에 적는 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그들을 만나서 꽃다발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몽골 어빙게렐교회 이체욱 선교사는 영상 편지를 띄우며 스테반 마리아 가족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몽골 찬양팀은 전통악기 연주, 흥겨운 민속춤과 특송을 선보였고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오철 권사(9선교구 연합회장)는 “코로나로 인해 올 한해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배와 모이기에 힘써 주신 선교구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전신갑주]

이언 두기드 지음

에베소서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와 전투를 위한 힘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확신 속에 안식하면서 매일 그 갑옷을 입도록 초대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세상과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스테인드글라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고백이 담겨있는 성전 - 광림교회 분당

광림교회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스 떼제 공동체(Taizé) 마르크 수사의 작품으로, 23개월의 작업 끝에 1998년에 완성되었다. 구체적인 형상 보다는 색채와 형태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파이프로르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영적인 신비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광림교회 스테인드글라스는 제단을 중심으로 오른쪽 6개 창과 왼쪽 2층 4개의 창에 설치되었다. 오른쪽 6개 창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높이 12m의 창 3개와 2층 좌석에 의해 이등분된 3개 창으로 이뤄져 있다. 마르크 수사는 온전한 창이 3개라는 점에 착안해 첫 번째 3개의 창에 삼위일체를 형상화하고 상하로 나뉜 3개의 창에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제단 왼쪽 4개의 창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회심과 모세의 소명을 추상적으로 해석해 표현했다. ✚ 백명순 기자

대예배실

오른쪽 첫 번째 창인 '성부'에는 태초 빛의 근원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사용하고, 두 번째 창인 '성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심과 자신을 내어주심을 흰색과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은 노란색을 사용해 마치 봄과 같이 생명감이 넘치는 성령의 힘을 표현했다.



성부 파트

태초에 암흑의 시기 속에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다. 어둠 속의 빛은 세상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다.



▲ 다윗의 별을 통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표현

▲ 하나님과 함께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었다

성령 파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느낌을 준다. 비둘기는 임재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봄과 같이 생명감 넘치는 영적 힘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윗층 후면에 위치한 세 개의 부분은 성령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간 중간 빨갛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상징함으로 불같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같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표현

▲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 하나의 사랑을 부었다 / 우리의 마음 속에

숲속에 타는 불꽃과 존 웨슬리의 회심 파트

왼쪽 스테인드글라스는 숲속에 타는 불꽃과 존 웨슬리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푸른색은 애굽의 압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두 주제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두웠던 노예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소명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울더스게이트 회심을 상징하고 있다.



성자 파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성육신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합쳐지는 곳에 어린양의 모습이 새겨졌다. 빨간 어린양의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다.



▲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

▲ 우리와 함께 계셨다 / 말씀 사람이 되셨다 / 우리 그분의 영광을 봤다

교회 파트

아래층 후면에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표현하며, 오랜 옛날 성만찬 시에 부르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송사와 말씀을 새겨, 교회는 나눔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중간 부분에는 포도송이와 보리, 물고기가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